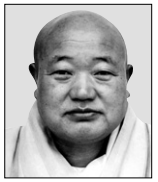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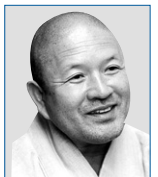
일주문



북국사 제1회 청소년 여름수련회
경주 북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7월 25~27일 북국사 일대에서 중학생 대상 제1회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연다.



동화사 여름수련회 '달마야 놀자'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7월 21~22일 동화사 경내에서 여름수련회 '달마야 놀자'를 개최한다.



통도사 상소굴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 범하 스님은 7월 16일 경봉선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회를 맞이해 9월 23일까지 특별전 상소굴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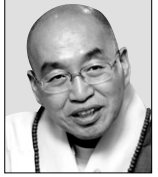
제10회 봉선사 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7월 28일 봉선사 연꽃밭 특설무대에서 제10회 봉선사 연꽃축제를 마련한다.



흥천사, 100만배 정진기도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일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관음전 복원과 관세음보살 조성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100만배 정진 기도를 시작했다.



조계사 화엄성중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7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 111일 화엄성중기도'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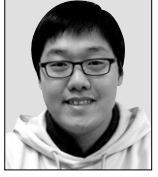
'죽문죽설' 사회문제 편 열어
법륜 스님이 7월 9일 오후 7시 서울 대문화관 조국 교수와 박경철 원장과 함께 '새로운 100년, 죽문죽설 사회문제편'을 연다.



비교종교학 일요특강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범정 스님은 6월 24일 2층 큰법당에서 오강남 캐나다 리지아나대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일요특강을 했다.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은 20~30대 젊은이를 위한 '마음명상왕초보 템플스테이'를 7월 20~22일 강화도 전동사에서 진행한다.



제3회 Young Buddhist Camp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3~6일 백담사 만해마을, 신홍사, 낙산사 등 강원도 일대에서 제3회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교육 불사가 한국불교의 희망”

광주 중심사 주지 연광 스님



지난 5월 광주에서는 한국불교의 선·교·을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강좌가 진행됐다. 광주 중심사(주지 연광)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불교 강좌를 개설했다.

중심사는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다. 늘 기도하는 신도들로 붐비는 이곳에 연광 스님은 “시민들을 위한 불교 강좌를 개설해 불교교육 활성화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육이 한국불교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가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듯, 사찰에서도 불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40년 간 설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스님은 이런 발원으로 지난 5월부터 대중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고, 이어 사찰신도들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개설을 마련했다. 중심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불교교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심사에서는 연과 스님이 진행하는 기초교리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1달 여 사이 약 100여 명이 강좌를 신청해 수강 중이다. 특히 기존 신도보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광주지역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불교강좌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그만큼 불교 교리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절실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강연은 고무하지 않다. 스님은 불교 기본교리를 담고 있는 <아함경>에 대해 주로 강연한다. 스님은 <아함경>의 내용을 불자들의 고민에 빚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자용어를 최소화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냈다.

스님은 “한국사회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 자녀교육, 그리고 노화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아함경>내용을 풀어낸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광주 대표 수행단체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12회에 걸쳐 대중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문학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기부적인 요소가 많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 불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광주를 불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제2대 회장에 각운 스님 선출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각운·사진)는 6월 28일 종로 두산위브 회의실에서 '제2대 각운 스님 회장선출 및 총재단 회장단 상건례'를 봉행했다.

대회협력위원장 성철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각운 스님(무무암 회주)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 본연의 행이 아닌 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단체로 명실 공히 한국불교의 중추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는 2000년 4월 30일 법인등록 후 현재 186개 종단이 가입돼 있으며 6개 종단이 추가 가입 진행 중이다. 제2대 각운 스님 취임법회는 8월 7일 흥성 무무암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 전달

건국대병원 불교법당, 수술치료비 1천만 원

건국대병원 불교법당(지도법사 범경)은 6월 26일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을 받은 중국 동포 리진지(3)군에게 수술 치료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건국대병원 양정현 의료원장, 수술 집도의 서동만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진지 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다.

한편, 22일 건국대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심실중격결손증 수술을 받은 리 군은 회복경과가 좋아 27일 퇴원해 중국 심양으로 돌아갔다.

신중일 기자

한·독 교수들 탈핵 공동협력 나서

25일 독일 현지서...불교생명윤리법 협연 스님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이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과자연보호협회(분트)'와 '탈핵(탈원전)과 생태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대표단은 6월 25일 독일 뮌헨 뉘른베르크성 내 슈바이스푸르트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분트 측과 만나 '독일과 한국의 시민단체들 사이의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공동협력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약정 체결식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와 법륜 스님(전 태고종총무원부위원장)이 동참했으며, 법륜 스님은 협회 고문인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의 친서를 분트 측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 법륜 스님이 독일 분트 측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원효 저술 찾기 학계의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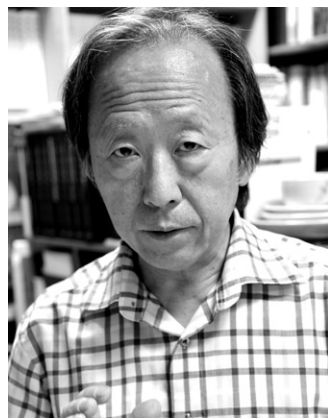
미공개 원효 저술 목록 16종 밝힌 김상현 교수

“신라 불교학은 중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사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중 원효는 당대의 최고 석학으로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불교사학자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6월 16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열린 '신라사경 프로젝트' 국제워크숍에서 오타니 대학 등 일본 현지에서 소장된 고대 불교 문헌류의 신라승 저술 목록들을 최근 정리한 결과 <불성의장> 등 원효가 남긴 미공개 저술 목록 16종을 새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상현 교수는 “실물은 전하지 않지만, 확인된 저술 목록만으로도 원효 스님이 다양한 유파의 경전과 여러 학문 등에 통달한 당대 최고 석학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가 이날 발표한 '일본에 전한 신라불교전적의 연구 현황' 논문에는 10여 년간 일본 사찰·대학의 옛 전적 등을 판독해 밝혀낸 7~9세기 신라승들의 미공개 저술 목록 90종이 담



겨져 있다. 김 교수는 “이런 90종을 포함하면, 7세기부터 200년간 신라 승들의 불교 저술은 440여종이나 된다”며 “당시 신라의 불교학 수준이 중국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님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과 별개로 일본 서지학적 보존 노력이 놀랍다”며 “한국 학계와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티베트 마을의 행복이 제 행복”

티베트 마을 자립운동 펴는 가연숙 씨

한국에서 방송영상학을 공부하던 한 여성이 티베트 망명정부 마을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가연숙 씨. 가 씨는 2009년 인도 다람살라에 삶의 동지를 둔 이후 홈페이지 '가교'(www.gagyoo.org)를 통해 인도 다람살라 마을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이번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서는 달라이라마 최측근인 삼동린포체의 수행원 역할을 하기도.



서고 있다. “많은 티베트 청년들이 인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로 정처없이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티베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희망은 무엇일까? 남편과의 사이에는 얼마 전 아이까지 생겼다. 1년에 한번 찾는 한국에서 인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오늘도 희망어린 꿈을 꾸고 있다.

노덕현 기자

효사 육임활용서 CD프로그램 大々 할인 판매

- '발전적 결심'으로 한시(限時) 출고 합니다 -

“저의 '육임활용서'와 'CD프로그램'을 100으로 쓰시는 분, 1,000으로 쓰시는 분, 10,000으로 쓰시는 분이 이사온데 저는 10,000으로 쓰게 해드리고 싶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 육임활용 주요품목 ◆

- '효사비결' CD프로그램 120만원 정가 650만원(육임 당면사 일생사 / 띠별 성부 확정 / 종합)
• '군자수첩' CD프로그램 40만원 정가 103만원(육임부분 분개 장착)
• '고귀명수' 全 6권(휴대용·탁상용) 80만원 정가 350만원(육임운명판단법)
• '육임산책' 통권 / 全 6권(휴대용·통권) 50만원 정가 250만원(육임당면사 / 신수비결)
• '육임래정비법' 2011 증보판 15만원 정가 35만원 (왜 왔는가? 항목별 성부 단정)
• '육임풍수' 2011 증보판(통권·휴대용) 10만원 정가 25만원 (육친 / 좌향적시 / 묘지속 전경 / 후손 영고 등)

◆ 육임학습 주요품목◆

- 효사육임강론 上下 15만원 정가 45만원(육임종합학습서)
• 효사육임 1년 신수비결 8만원 정가 15만원(1년 월별 신수 / 가족 전체 길흉 등)



효사비결

“최종품입니다. 더이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大々 할인가간

2012년 6월 25일 ~ 7월 6일 까지 (12일간)

“구입하신 후 효과성을 위해 지방도 직접 방문,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 효사 -

육임나라주식회사 02)738-8680

www.taotemple.net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국민 006001-04-236454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보장된 이 시대 최고의 상담전문용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입니다.